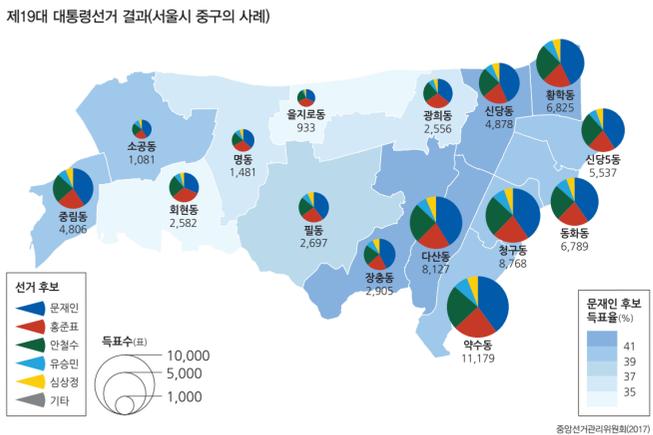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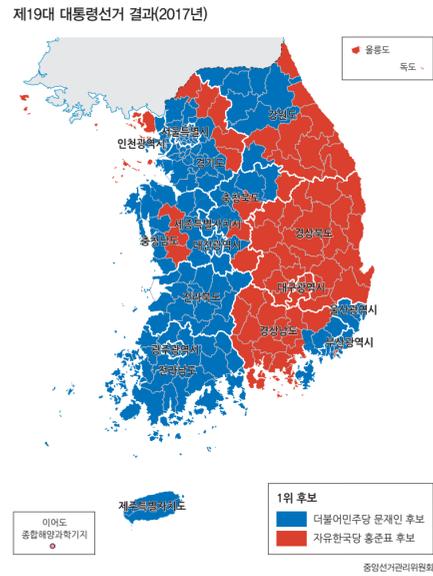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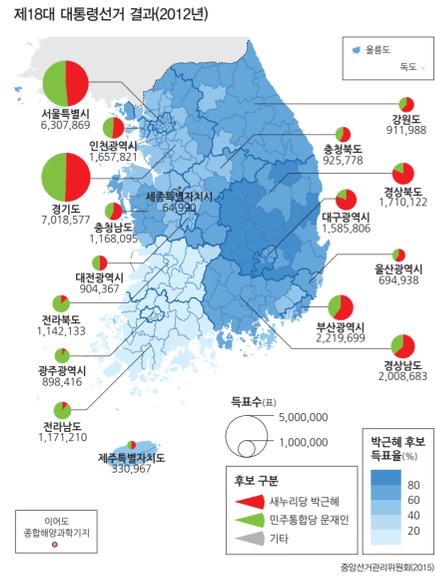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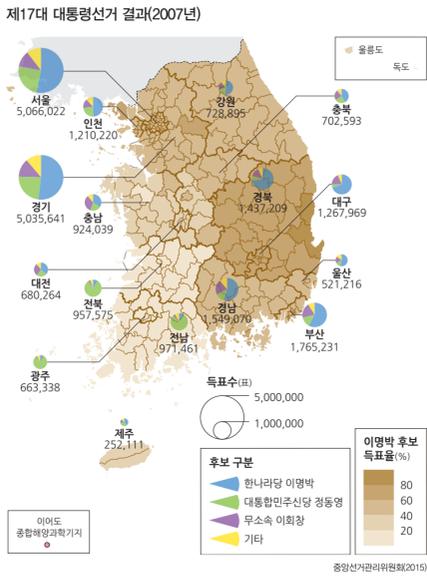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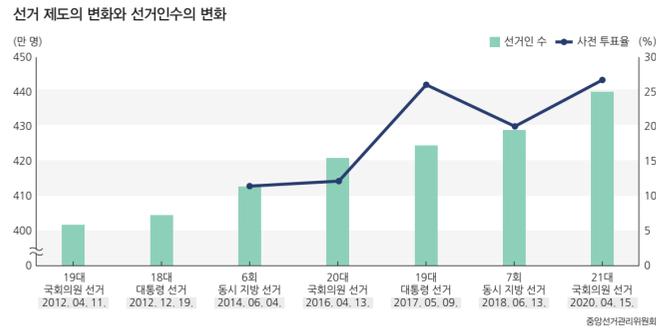


정치와 선거

민주주의의 성취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커다란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취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기반이 되었다. 최근에는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 선거 제도의 도입, 사전 투표 제도의 실시,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 1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과 도지사, 군수 등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행정 구역별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며, 행정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방에 필요한 의제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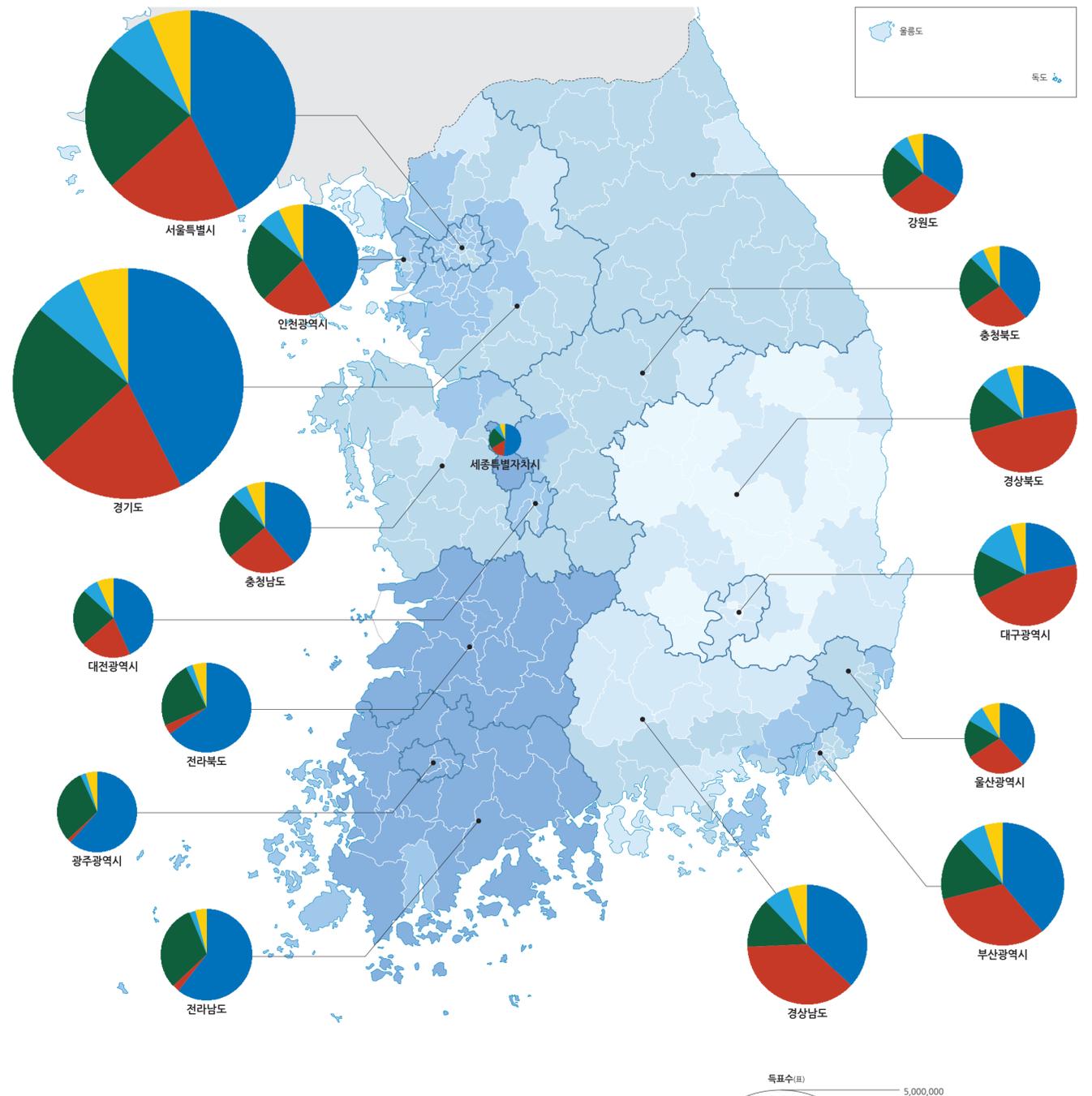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 총 1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최종 투표율은 77.2%였으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총 13,423,800표 41.09%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부산 지역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경상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대통령 선거는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 후보와 보수 성향 후보 사이의 경쟁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세대별, 도·농별, 계층별, 성별 투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 투표와 함께 세대별 투표의 경향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선거 시기마다 지역별·세대별 투표율의 차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함께 무소속의 박종진,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51.55%,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48.02%를 득표하여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두 후보 간 경합이 치열하였으며, 호남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영남권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우세하였다.

대통령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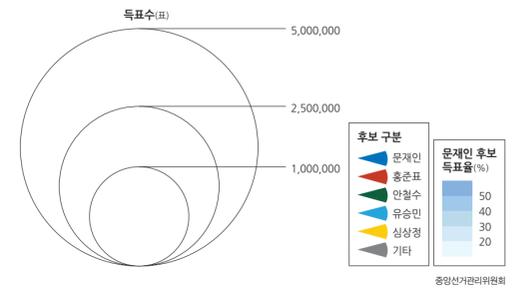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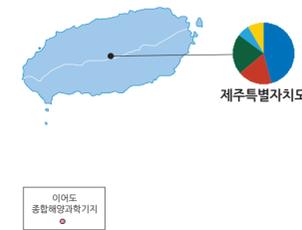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2017년)



문재인 후보 득표율

행정 구역	득표율(%)
경기도 과천시	40.6
경기도 의정부시	41
부산 북구	41.2
서울 중구	41.2
서울 강동구	41.3
인천 연수구	41.4
경기도 하남시	41.4
부산 사상구	4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2007년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통합민주당의 정동영 후보,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 등 총 10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이 중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48.67%, 통합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26.14%를 득표하여,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명박 후보는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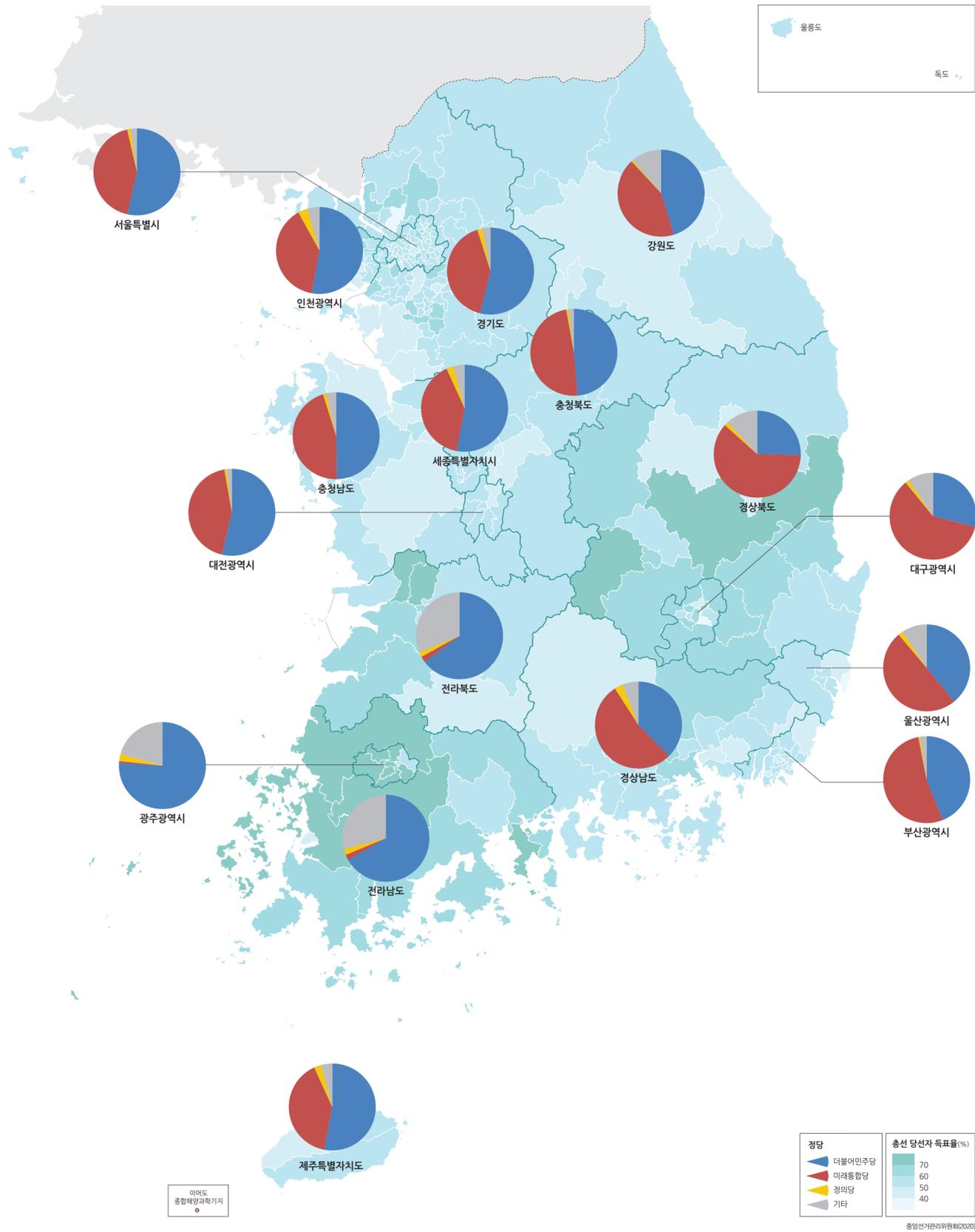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총 유효 투

표의 41.1%,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0%를 득표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전국 득표율과 유사한 투표 결과를 보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의정부시,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서울특별시 중구, 강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이다. 특히 전국 투표 결과와 유사한 시·군·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수도권의 투표 경향은 보수와 진보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적 투표 경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어느 한 당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청장년층과 중장년층의 투표 행태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청장년층과 중장년층이 고루 분포하는 수도권 인구 구성 특성으로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경향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전국 평균과 유사한 투표 결과를 나타낸 일부 시·군·구의 경우도 동·읍·면 단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크다.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총선결과(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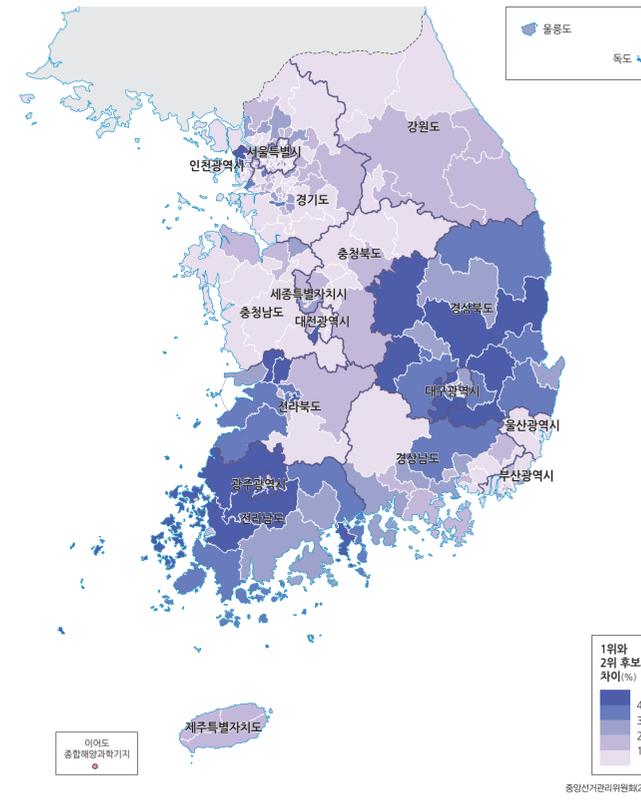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매 4년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직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 지지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47석의 비례대표가 선출되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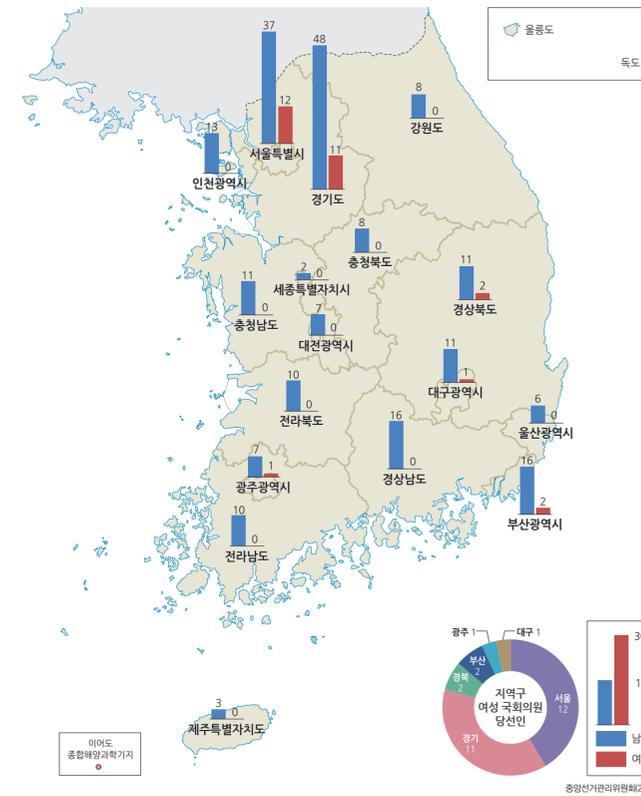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투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미래통합당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당선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최대 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정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적은 지역에서는 많은 사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

제21대 총선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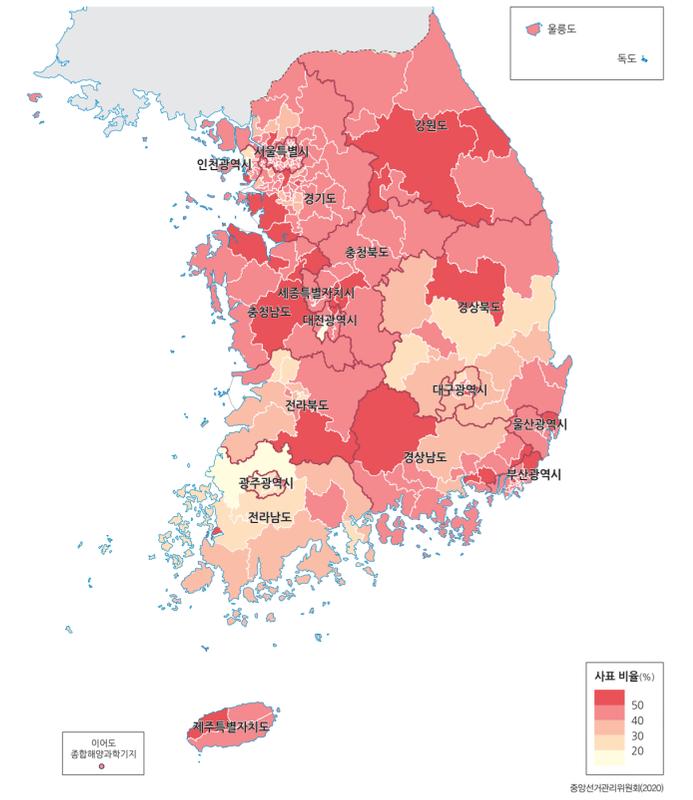


제21대 총선 당선자의 성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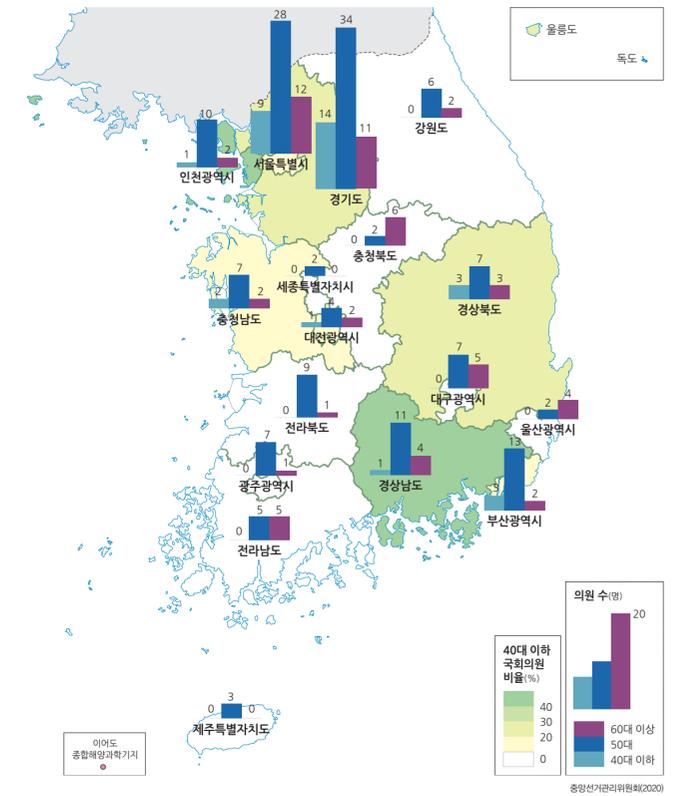


히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비슷한 경우, 2위 득표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율은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적고,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큰 경향을 나타낸다. 제21대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선거구별 사표 비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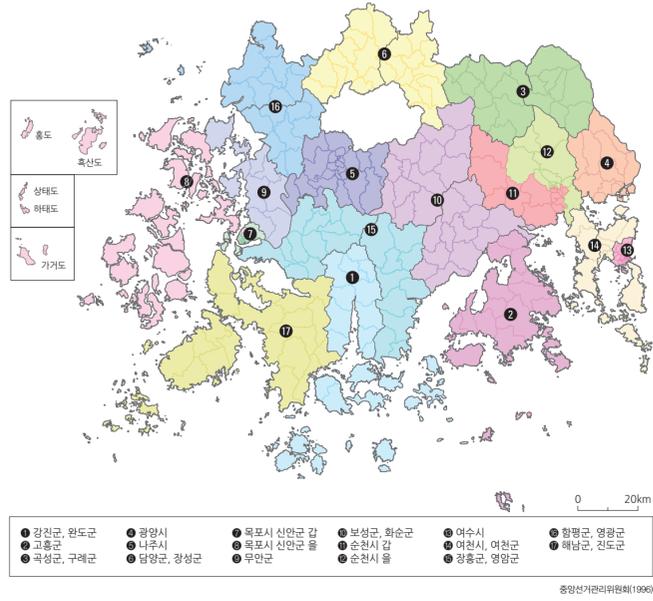


제21대 총선 당선자의 연령(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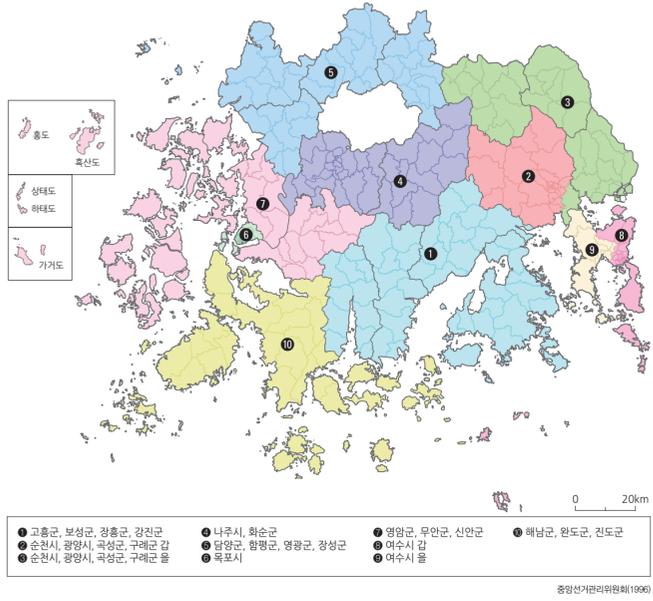


선거는 이러한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를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를 감안하여 정당에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국회 진출에 있어,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의 국회 진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인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다. 또한 최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3-40대의 국회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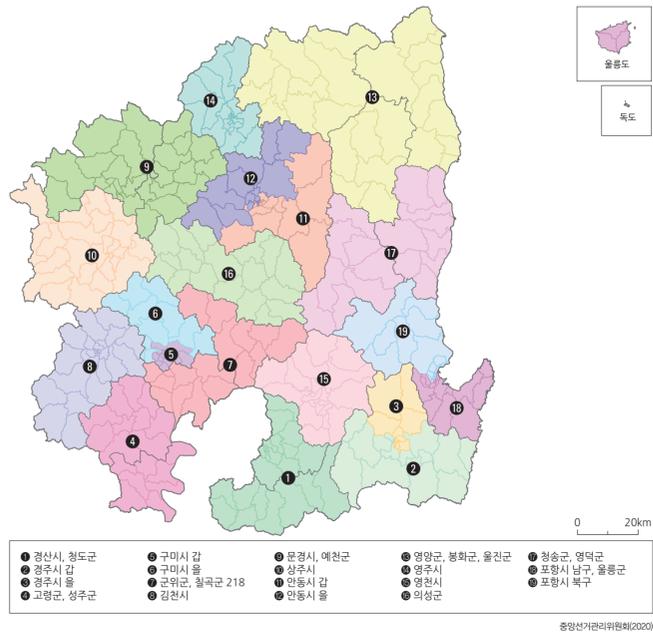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전라남도,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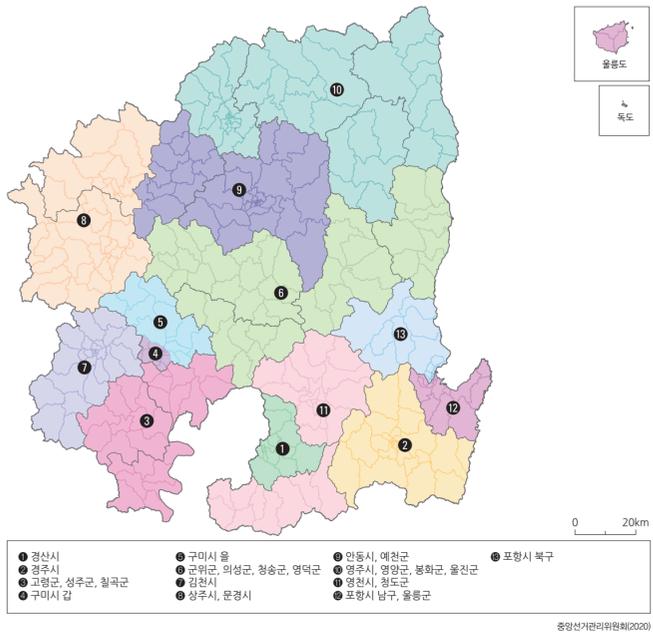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전라남도, 2020년)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경상북도, 1996년)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경상북도, 2020년)



지역별 국회의원 의석수 변화(1996~202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5대 총선(1996)	47	21	13	11	6	7			38	13	8	13	14	17	19	23	3	253
16대 총선(2000)	45	17	11	11	6	6	5		41	9	7	11	10	13	16	16	3	227
17대 총선(2004)	48	18	12	12	7	6	6		49	8	8	10	11	13	15	17	3	243
18대 총선(2008)	48	18	12	12	8	6	6		51	8	8	10	11	12	15	17	3	245
19대 총선(2012)	48	18	12	12	8	6	6	1	52	9	8	10	11	11	15	16	3	246
20대 총선(2016)	49	18	12	13	8	7	6	1	60	8	8	11	10	10	13	16	3	253
21대 총선(2020)	49	18	12	13	8	7	6	2	59	8	8	11	10	10	13	16	3	253

선거구는 정치 체도를 반영하며, 인구 변화와 이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개편이 선거 직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선거인 수 비율의 상한선을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및 대도시의 구도심 선거구는 통합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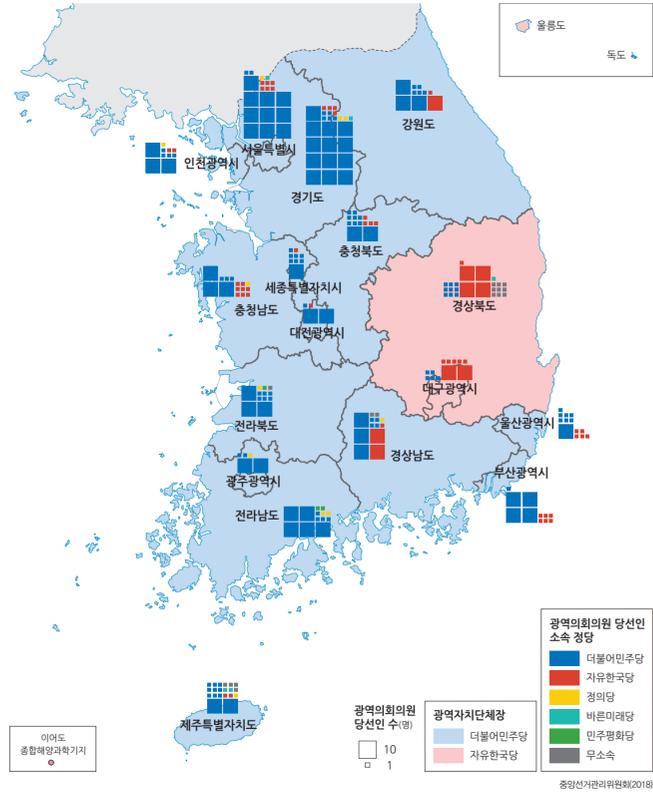
라남도과 경상북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2-3개 행정 구역이 합쳐져서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구역의 일부만 분할하여 다른 행정 구역과 통합하여 선거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구 개편은 행정 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이어지고,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며, 다수의 행정 구역이 통합된 선거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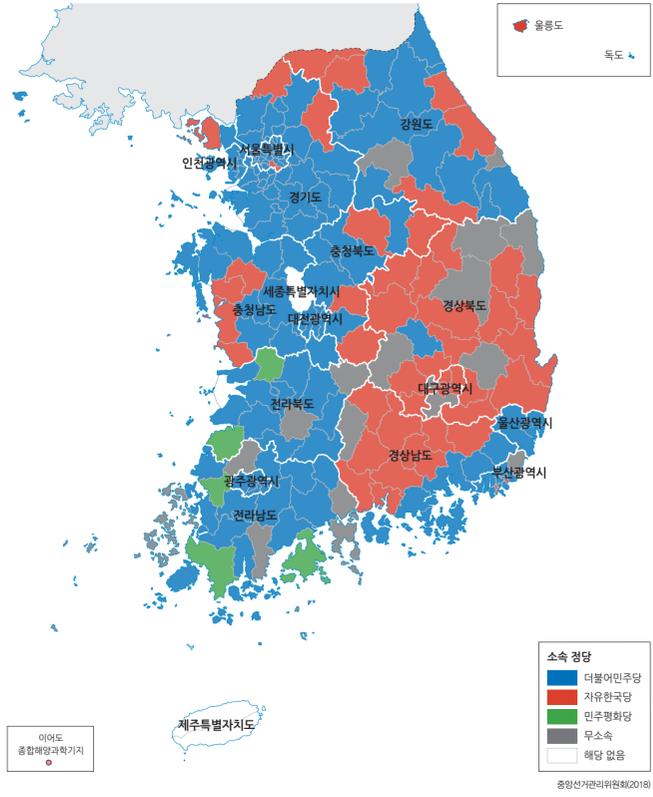
매 4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선출된다. 이중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뉜다.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4석은 더불어민주당, 2석은 자유한국당, 1석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광역의회의 선거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전국 824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652석, 자유한국당이 137석을 차지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다수 선출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51, 자유한국당 53, 민주평화당 5, 무소속 17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출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군·구에서 2,926명의 기초의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기초의회를 통해 청년,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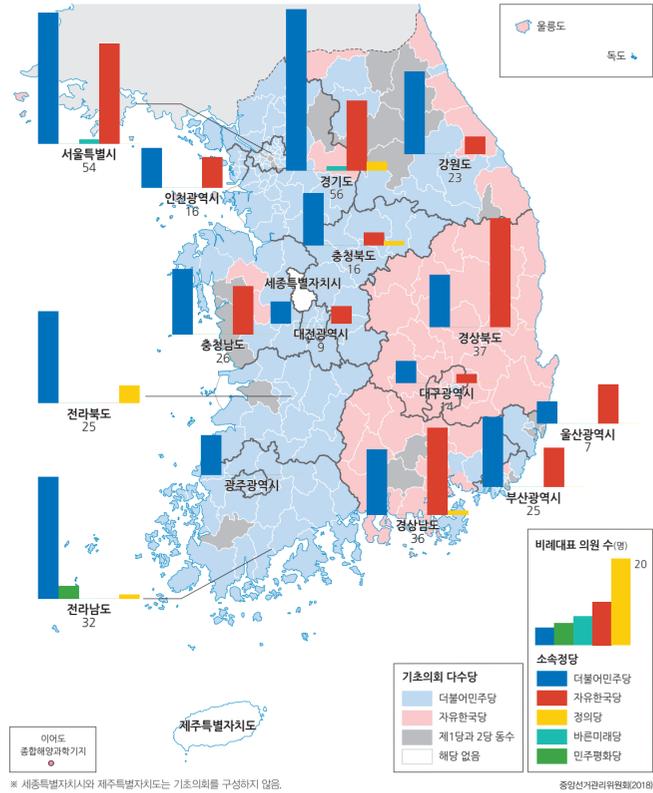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 결과(2018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2018년)



기초의회 선거 결과(2018년)



기초의회 당선자의 성별(2018년)

